

# 보 도 자 료



- ◆ 2022. 3. 25. (금) 배포
- ◆ 총 3쪽 (본문 2쪽, 첨부 1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김현철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 ☎ 032-760-5335  
강민구 문화홍보실장 ☎ 032-770-8631

## “안전한 극지항해를 위해” ...산·학·연 힘 모은다

극지연, 대우조선해양·인하대·인하공전과 MOU체결

-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가 24일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(대표이사 이성근), 인하대학교 (총장 조명우), 인하공업전문대학 (총장 서태범)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4개 기관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극지 운항 공동연구에 힘을 모은다. 위성 관측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한 극지 운항과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각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.
- 북극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를 덮고 있던 해빙 (바다얼음)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. 접근과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해빙에 가려 있던 수산·지하자원의 개발 등 경제적 가치에도 관심이 높아졌다.
- 그러나 녹아서 분리된 채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해빙 조각이 배의 운항을 방해하고, 계절에 따라 해빙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현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해빙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 인공위성은 접근이 어려운 북극해를 광역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서 북극해빙 연구에 활용된다. 극지연구소는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해 북극해빙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.
- 대우조선해양은 약 20년간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 연구로 극지운항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, 지난 2017년에는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야말 LNG선을 제작했다.
- 인하대와 인하공전은 선박이 극지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모 등을 분석하고 쇄빙선 설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.
- 강성호 극지연구소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가 현장과 실험실에서 찾은 연구 결과가 학교·산업계의 연구로 이어지고,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”고 전했다.

**붙임1. 인공위성 활용 극지 운항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약정 체결식**



극지연구소